

시멘트 · 콘크리트 관련 뉴스 및 단신



상반기 중국 시멘트 생산 전년동기대비 4.4% 증가

중국의 2014년 상반기 시멘트 생산이 11억4,374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하였다고 일본시멘트신문이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의 시멘트 생산은 두 자릿수의 고성장이 지속되다가 지난해부터 한 자릿수 증가 추이를 보이며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2014년 시멘트 생산은 20억톤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는 지난 2011년까지 10년 동안 10%를 초과하는 고성장세를 유지해왔다. 이에 시멘트 생산도 급격하게 늘어나 현재 세계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에는 세계경기의 저성장과 중국 부동산투자의 축소에 따라 생산 증가율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두 자릿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2012년에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주택착공 호수 감소, 고속철도 사고로 인한 철도공사 계획 동결 등으로 경기가 하락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인프라 정비 등으로 2012년 9월부터 회복되기 시작해 2013년 시멘트 생산은 24억1,440만톤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9.6% 증가해 3년 연속 20억톤을 초과하였다.

2014년 상반기 중국의 명목GDP는 26조9,044억위안을 기록했는데 전년동기대비 실질성장률은 7.4%를 나타냈다. 일부 분야에 대한 금융완화, 철도 등 인프라투자 확대 등 일련의 경기부양책이 성공하여 2분기 연속 성장률이 감소를 막았다.

상반기 도시지역 명목고정자산투자(건축공사와 설비투자액의 합계)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7.3% 성장했다. 이 기간에는 가스, 수도 등 공공사업, 수리시설, 교통 수송 등 인프라 투자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제조업, 부동산개발 투자는 감소하여 고정자산투자의 억제 요인이 되었다.

2014년 1~2월 중국의 시멘트 생산은 1.3% 증가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3월 9.5%, 4월 5.1%, 5월 4.5%로 늘어나 회복세를 보였으며, 6월 들어 1.9% 증가에 그쳐 회복세가 다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시멘트 생산은 하반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2014년에는 24억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04년부터 시멘트, 철도 등의 업종에 대하여 생산과잉 해소와 에너지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기업의 도태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시멘트를 시작으로 자동차, 철강 등 9개 산업을 대상으로 기업간 합병·재편을 촉진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시멘트업계는 2015년까지 상위 10개사의 산업집중도를 35%까지 높이기로 하고 3~5개사가 1억톤을 초과하는 생산능력을 갖추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구식 가마를 최신 NSP 킬른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과잉생산설비 해소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멘트 수요가 크게 감소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이 격화되어 시장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시멘트신문 8월 4일)



2013년 일본 시멘트계고화재 수요 전년동기대비 13.0% 증가

2013년 일본의 시멘트 고화재 수요가 전년동기대비 13.0% 증가한 793만4,000톤으로 2년 연속 700만톤을 초과하였다고 일본시멘트신문이 일본시멘트협회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역별로는 시코쿠(도쿠시마현, 가가와현, 에히메현, 고치현)를 제외한 전 지역이 증가하였다. 2012년에 39.6% 증가한 도호쿠(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가 6% 증가하였고, 주고쿠(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도 10%에 약간 못 미치는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그 외 지역은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는 호조를 나타내었다.

한편 6가크롬 용출을 억제하는 특수토양에 사용되는 고화재는 489만5,000톤으로 16.6% 증가하였으며 구성비는 2012년보다 2.0%p 증가한 61.8%를 나타내었다.

지방별 시멘트계고화재 수요 추이 (단위 : 천톤,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년비
홋카이도	132	135	145	132	157	102	130	144	159	110.9
도호쿠	526	567	510	524	441	480	650	908	962	105.9
칸토	2,049	2,266	2,074	2,306	1,977	2,083	2,218	2,362	2,681	113.5
호쿠리쿠	682	721	684	707	654	638	672	672	751	111.8
도카이	950	1,137	1,094	1,234	973	976	988	995	1,110	111.5
긴키	1,004	1,013	1,019	1,032	946	970	984	971	1,138	117.2
시코쿠	132	101	104	87	89	86	106	110	100	90.6
주고쿠	284	349	352	340	274	268	318	318	349	109.9
규슈·오키나와	517	563	556	524	479	506	505	544	684	125.7
계	6,276	6,852	6,538	6,886	5,990	6,109	6,571	7,024	7,934	113.0
특수토양	1,364	1,714	1,891	2,377	2,806	3,248	3,680	4,198	4,895	116.6

주 : 특수토양은 전체수요에 포함되어 있음

시멘트계고화재는 토양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고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멘트의 특성성과 입도조정을 한 특수시멘트(일본시멘트협회 시멘트계고화재에 의한 지반개량 매뉴얼 제4판)를 말하는데 1970년대부터 주요 시멘트사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시멘트계고화재는 처음에는 대형 공공공사에 주로 사용했다. 특히 1984년 1월부터 공사가 진행된 도쿄국제공항 매립공사에서 다양한 연약지반 개량공법이 실용화되었는데 여기에 시멘트계고화재가 사용되었다.

시멘트계고화재는 매립지 등 연약지반개량 외에 노반(路盤)개량, 오니(sludge)의 고화처리에 유용하게 쓰이기 시작하면서 점차 보급이 확대되어 1988년에 200만톤에서 1989년 300만톤, 1990년 400만톤을 달성하였다. 이후 버블경기 붕괴, 공공사업비 삭감 등으로 인해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기도 했다. 이렇듯 시멘트 수요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도 시멘트계고화재의 우수한 특징이 시공자뿐만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호평을 받아 견조한 수요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1995년은 1월에 발생한 효고현남부지진(한신·아와지대지진)으로 액상화(지진 진동으로 지반이 다량의 수분을 머금어 액체와 같은 상태로 변함) 피해 지역이 넓게 퍼져 시멘트계고화재 수요가 마침내 500만톤을 돌파하였다. 1996년에는 600만톤을 초과하였으나 대형공사업이 적었던 1997~1998년에는 500만톤에 머물렀다. 1999년은 615만9,000톤으로 회복하였으나 2000년은 다시 감소하여 600만톤 규모를 간신히 유지하였다. 2001~2003년은 500만톤 선



이었는데 2004년 이후에는 2009년 599만톤을 제외하고 600만톤 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단독주택의 기초지반 공사에 사용이 증가한 데다 2011년 3월에 발생한 도호쿠(동북)지방 대지진의 여파로 광범위하게 액상화피해가 발생하여 일본시멘트협회의 시멘트계고화재기술전문위원회와 시멘트계고화재보급전문위원회는 합동으로 지진피해조사 워킹그룹(주관자 : 北詰昌樹 동경공업대학대학원교수)을 조직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시멘트계고화재가 지지력 강화, 침하 방지 등 액상화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진재해로 인한 액상화대책 등 지반강화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시멘트계고화재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2012년은 2011년 657만톤대 6.9% 증가한 702만톤으로 처음으로 700만톤을 초과하였다. 2013년은 800만톤 가까운 수요를 달성하였다.

특수토용고화재는 2000년 3월 일본건설성(현 국토교통성)이 고화처리토에서 토양환경기준을 초과한 6가크롬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통지를 받은 시멘트사에서 2000년 4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2002년 수요는 76만톤이었지만 2003년 98만4,000톤, 2004년 114만3,999톤으로 100만톤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이어가 2008년에는 237만7,000톤을 기록하며 최초로 200만톤을 넘어섰다. 2010년에는 324만8,000톤으로 300만톤을 넘어섰고, 2012년에는 다시 400만톤 규모로 올라섰다. 2013년에도 계속 증가하여 500만톤에 가까운 실적을 나타냈으며 그 결과 구성비는 처음으로 60%대를 넘어섰다.

한편 일본시멘트협회는 적재적소에 시멘트계고화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보급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멘트계고화재에 의한 지반개량매뉴얼」 제4판 발행에 맞춰 2012, 2013년에는 각각 세 곳에서 고화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4년에도 9월 17일 나고야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앞으로는 히로시마와 삿포로에서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시멘트신문, 6월 23일)

중국, 시멘트 기업에 190억원 규모 반독점 벌금 부과

중국이 가격을 담합한 시멘트 기업 3곳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9월 9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최근 지린야타이(吉林亞泰)집단시멘트판매공사, 베이팡(北方)시멘트공사, 지둥(冀東)시멘트지린공사 등 3개 기업에 1억1,439만위안(약 190억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발개위는 이들 기업이 2011년 4월과 5월 수차례 회의를 갖고 특정 지역에 공급하는 시멘트 가격을 협의해 결정하는 등 가격 담합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8월 20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12곳에 거액의 벌금을 물린 데 이어 얼마 전에도 보험업계에도 반독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로 반(反)독점 조사와 처벌에 나서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 9월 9일)

